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밀양예수교총회 충현교회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전근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

예수님만 높임받으시는 교회

1-5부예배시 성찬식 · 오후엔 축하음악예배

어느덧 45년이 흘렀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개척 초기부터 경건한 예배, 뜨거운 말씀과 기도, 말씀하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 천국일꾼 키우기 등으로 한국 교회에 도전과 영성을 불어넣었던 교회가 어느새 훌쩍 45년을 지나왔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초창기 성도들의 순교자적 사랑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어느새 30대 장로 장립, 11대 안수집사 장립, 39대 권사 취임에 이르는 역사를 축적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과 진통과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묶어 자라가듯이, 우리 교회도 동일한 진통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이다. 특히 지난 해에는 감장인 원로목사의 성직 6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김성관 목사가 위임목사로 세워지는 경사가 이어졌다. 김성관 위임목사는 작년 위임식예배를 통해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역설했고, 이후로 충현의 강단은 예수 중심의 기독교적 구심력을 확고하게 지니게 되었다. 김성관 목사는 충현교회가 견지해 온 5대 목표, 곧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누락되어 온 사람의 유전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여름에는 70여명의 젊은이들을 그 지역들에 파송하였다. 특히 신설된 5부예배를 축으로 하여 젊은이 키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적인 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성도들은 충현교회가 끝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로 신실하게 자라가도록 더욱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였다.

한편 오는 1-5부예배시에는 98년도 제5차 신설된 5부예배를 축으로 하여 젊은이 키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적인 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성도들은 충현교회가 끝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로 신실하게 자라가도록 더욱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였다.

45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대충현 살롱

주님이 주신
사랑의 채운 피 끓는 가슴
나뉘는 하늘을 밟 첫발 내딛던 새 땅
주님 함께 설 자리 없던
그 시절 그 청춘.

한 평의 땅 마련할 길 없어
울어대던 기도의 손
시간에 질질러
에달던 솔길
되만만 찬란한 빛 나의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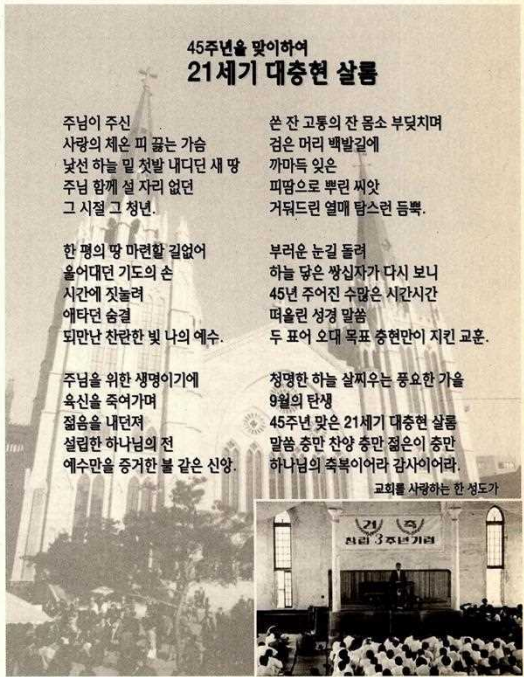
손 잔 고통의 잔 물소 부딪치며
검은 머리 백발길에
까마득한
피담으로 뿌린 씨앗
거두되던 열매 탐스런 들판.

부러온 눈길 돌려
하늘 닿은 쌍심자가 다시 보니
45년 주어진 수많은 시간시간
떠올린 성경 말씀
두 포어 오대 목표 충현만이 지킨 교훈.

주님을 위한 생명이기에
죽음을 죽여가며
죄인을 내던져
설립한 하나님의 전
예수만을 증거할 뿐 같은 신앙.

청명한 하늘 살피우는 풍요한 가을
9월의 탄생
45주년 맞은 21세기 대충현 살롱
말씀 찬양 찬양 찬양 젊은이 찬미
하나님의 축복이여라 감사이여라.

교회를 사랑하는 한 성도가



하반기 교구 사역

다시금 허리띠를 동이고 출발!

교구영성훈련, 구역예배, 남·여 구역장 훈련 재개

분주한 여름 사역으로 잠시 느슨해졌 볼을 붙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교구 영성훈련 일정

1교구	9월 15일	2교구	9월 17일	3교구	9월 22일
4교구	9월 24일	5교구	10월 8일	6교구	10월 13일
7교구	10월 15일	8교구	10월 20일	9교구	10월 22일
10교구	10월 27일	11교구	10월 29일	12교구	11월 3일
13교구	11월 5일	14교구	11월 10일	15교구	11월 12일
16교구	11월 17일	17교구	11월 19일		

※구역장훈련 일정

	남성구역장	여성구역장
9/9	영성훈련(위임목사)	영성훈련(위임목사)
9/16	구역공과인도법(전행총목사)	구역행정전(교구목사)
9/23	구역공과인도법(전행총목사)	구역행정전(교구목사)
9/30	하나님의 인도(김필수 목사)	복음이전(교구목사)
10/7	성경해석학(이승수 목사)	영성훈련(위임목사)
10/14	성경해석학(이승수 목사)	개인성경공부(교구목사)
10/21	개인성경공부(이승수 목사)	개인성경공부(교구목사)
10/28	개인성경공부(이승수 목사)	하나님의 인도(교구목사)
11/4	인간사상(정현민 목사)	영성훈련(위임목사)
11/11	인간사상(정현민 목사)	인간사상(교구목사)
11/18	전도특강(김필수 목사)	인간사상(교구목사)
11/25	구역부흥(김필수 목사)	전도 및 구역부흥(김필수 목사)

전도용 티슈

다음주일(13일)부터 배포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용 티슈를 다음 주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도용 티슈는 나오자마자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본의 아니게 마치 광고지를 나누어 주듯이 함부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 개당 180원이 드는 티슈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알차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성도들로부터 티슈가 함부로 뿌려진다는 건의도 들어 왔었다. 그래서 전도위원회에서는 약 1개월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전서 사용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다시 지급되는 티슈는 꼭 주어야 할 형편에서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티슈는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수령하면 되고, 사용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어촌전도대 평가회

- 일시: 9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칼빈홀
- 대상: 교구장, 지도교역자, 팀장

— 전도위원회 —

주일예배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께!

공인 조성 공사로 인해 교회 옆 장 안주차장 및 서쪽 골짜기에는 9월 13일 부터 주차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전야예배까지 주차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제2교육관 지하 3, 4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차량관리부 —

심판 중에 남은 백성

(이사야 28:5-8)

“우리는 모두 남은 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에게 이용을 당하지도 말고, 사람을 믿지도 말고, 인정에 치우치거나 세상 형편을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날아가는 폭풍이가 아니라 속이 꼭 찬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김 창 인 목사

하 나님은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를 남겨 두시고 그들의 면류관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심판 중에도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 남은 백성의 생활

(1) 남은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진심인신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악마의 바람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추종자를 넘어 떨어지거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남아 있게 됩니다.

(2) 남은 백성은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 다. 심지어 교회의 헌금을 도적질하거나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 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또 자신의 이리석은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만 제일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국을 따라갑니 다. 세상의 세력이나 형편을 따라갑니 다. 대단히 불행스럽습니 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욕망을 이용을 당하지도 말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영향을 들리는 것이 목적인입니다.

2.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복

(1) 하나님은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5, 6절) 영화로운 면류관은 성공자에게 주어지는 권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는 하나님은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라에게 면류관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자신이 남은 자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성공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신이 되 어 주십니다.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결을 바로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옳게 해야 할 일과 나 중에 할 일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성경연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판단을 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곧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좋으나 악한 자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누가 와서 자기를 붙들고 달라고 애원할 때 도와 주는 것은 좋으나 속아서 이용을 당하는 것은 이리석은 일이고 죄악을 키워 주는 악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남의 이용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돈을 쓸 곳에는 쓰지 않고 쓰지 않을 곳에 쓰여서 이용을 당하면 너무나 분한 일입니다. 셋째로, 바른 판단을 하는 자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고할 때마다 거두는 수확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이 땅에는 많습니 다.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으나 마지막에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고한 것마다 열매를 거두고 헛수고를 하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넷째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만 갑니 다. 이쪽으로는 저 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코 하신 옳은 길만 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화관, 즉 꽃으로 만든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거나 승리자가 되 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서 일등을 하면 월계꽃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 줍니 다. 남은 백성이 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쓰는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겠습니 다.

3. 남은 백성이 되는 길

(1) 은혜를 받아 남은 백성이 됩니다

내 결심이냐 수양만 가지고는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의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야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만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라야 남은 백성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 아 고부지각을 짓고 세력을 잡고 호방하게 살라는 사람은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간이나 장차 하나 날 앞에 불침번을 받아 터버릴 장망성입니다. 우리의 참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끝까지 남은 백성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다른 길로 갑니 다.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세상의 달콤한 향락과 세상의 영광이 생기면 결절 나 갑니 다. 세상에서 국외의 원이나 대동맹이 되거나 연방장자가 되어도 천국을 잃어 버리면 지옥의 죄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 목 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 다.

(3) 간관만으로는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에 네 가지 훌륭한 간관이 나오 습니 다. “이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열질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신자도 독주로 인하여 열질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 재판할 때 에 실수하느니라”(7절)

첫째로, 유다 사람들이 나오습니 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정통 인물인 유다지파를 말합니 다. 이렇게 간관이 좋은 유다지파가 포 도주에 취하였도, 즉 세상 열락에 취하 였다는 말입니다. 세상 열락에 취하면 불행스럽습니 다.

둘째로, 제사장이 나오습니 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이런 간관이 좋은 자들 도 독주로 인하여 열질을 치고 하 였습니 다. 이독주는 세상 욕심을 말합니 다. 간관이 아무리 좋아도 욕심에 취 하면 된입니다.

셋째로, 선지자가 나오습니 다. 선지자란 최고의 지식인을 말합니 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가운 데에도 독주에 취한 자가 있다고 하 습니 다.

넷째로, 재판관이 나오습니 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 에게 벌을 주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 주는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이들이 독주에 취하였습니 다. 즉 욕심 에 눈이 어두웠습니 다. 그래서 선한 사 람에게 악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악한 사람의 세력에 놀리거나 그들에게 매수 되어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합니 다. 간관만 가지고는 절대로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십니 다. 왜 안 됩니까? 포도주에 취하여 세상 열락에 끌려 가고 독주에 취하여 욕심에 빠져 버렸으니 남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상에 도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8절)

“모든 상”은 일터를 말합니 다. 그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 도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도했다는 것은 먹 지 못할 것을 먹었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도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등 가죽을 벗겨 먹다가 걸려서 토해 놓았 습니 다. 세상의 더러운 것 중에는 토해 놓은 것 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뱀 새가 코를 찌릅니 다. 사람이 토해 놓은 것에는 독이 있습니다. 또 ‘깨끗한 것이 없다’는 말은 부정무패만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세상 열락에 취하고 욕심에 취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부정무패 만 가득 합니 다. 오늘날 간관만 보고 따 라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기가 쉬우므 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간관이 좋습니 다. 선지 자라는 간관이 좋습니 다. 재판관이라는 간관이 좋습니 다. 유다지파라는 간관이 좋습니 다. 그러나 이들의 상을 보니까 도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4. 결 론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 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두 남은 자가 됩니 다. 우리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에 게 이용을 당하지도 말고, 사람을 믿지 도 말고, 인정에 치우치거나 세상 형편 을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자신 의 욕심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 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날 아가는 폭풍이가 아니라 속이 꼭 찬 알 곡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히 은혜를 받았고 우물대지 말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 다.

둘째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 아 누릅니 다. 영화의 면류관은 누가 쓸 니까? 성공한 사람과 승리한 사람이 습 니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 공하는 신자가 되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자신 이 누리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일국인 남 은 백산만 들어 가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 다. ■



김성곤 목사

오직 하나의 소망

(예레미야애가 5:19-22)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치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소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영원히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같이 앉으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늘 동일하시고 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오직’과 ‘소망’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하나의 소망’이란 우리들이 의미있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의 길을 뜻합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슬픔의 노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비통하기 그지없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에도 오직 하나의 소망은 있었습니 다. 그것은 어떤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차원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지켜 본 예레미야는 다섯 장의 슬픔의 노래를 저술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긴 노래의 처음 두 장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 두 장은 고뇌하는 신자와와 좌절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돌로 나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중 마지막 장에 담긴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와 간구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파탄된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 돌로 나뉜 후, 북 이스라엘은 유대로 위해 그리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의 멸망 직후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감옥에 갇히고 혹은 바벨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초도화된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바라보며 비탄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대궐밖은 백성들이 원수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은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앞에서 도움을 구하던 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없는 비참한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한 결과였습니다. 비참할 속에서 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

예레미야는 애가의 마지막 장에서 회복을 바라는 자신의 고백(5:1-18)과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일기 시작하는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기뻐할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상에 미치나이다”(19절).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도 소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기에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멸하시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제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다”(20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히브리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무릇되도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물론, 다윗의 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황폐한 시국은 그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치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소망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

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영원히 한결 같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같이 앉으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늘 동일하시고 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자

유대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좋은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시고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현실이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은 회개했기에는 소망 속에서 그 모든 현실의 원인을 명백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잊으심은 새로운 기억을 위함이고, 버림은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은총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버림은 현실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만이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다스리 세우게 하사 몇몇 길게 하옵소서”(21절).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 다.

예레미야 애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 주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회복하고 위안을 주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잃은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의 참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소망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뢰하는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루 버리셨시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식하

시나이다”(22절). 그들은 주께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그분께로써 멀리 떠나므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고 언약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배후시는 사랑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대적이 손을 퍼서 보물을 빼앗아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회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1:10). 이러한 상황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의 소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3:16).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이 클지라도,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격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때로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그저 이방신들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오직 하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M**

선교단상

— 사기와 수보드, 사진전과 간담회 이야기 —

외국인근로자사역부

여름 예수캠프에 참가하고서

사기(파키스탄인)



△ 가운데서 있는 이가 사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한 파키스탄인 친구가 경기도 광주 용수리에서 열리는 예수캠프에 꼭 참가할 것을 권한 것이 제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었습니다.

캠프에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반담순 선생님은 매우 이치적인 분으로서 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길이 되시고 그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니,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낯설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길을 계속 보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만났던 특별한 시간

수보드(스리랑카인)

8월 6, 7, 8일에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사람들이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 수련회와 충현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시간들이었는지.

예수가 누군지, 그분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 동안 궁금했던 문제들, 모르고 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때 여러 나라 외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에 저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수련회 때 참석했던 모든 외국인 친구들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특별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려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 집사님, 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 단기선교 사진전 개최

'98 단기선교 사진전이 이번 주일(6일)부터 본당 지하 1층에서 열린다.

7개 팀별로 상해한 사진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지는 이번 전시회에 단기선교팀원들의 기도와 땅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보는 분들 모두에게 전해지리라 믿는다.

본당 지하 1층, 특별한 조명도 없이 열리는 사진전이지만 글자 하나 하나,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담긴 단기선교팀원들의 기도와 땅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보는 분들 모두에게 전해지리라 믿는다.



△ 각 선교팀을 소개하고 있는 김춘권 장로.

단기선교 간담회를 마치고

1998년 여름 단기선교팀 간담회(목) 8월 27일(목)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수 목사(선교위원회 지도)의 예배 인도(마 28:18-20)로 시작한 '98 여름 단기선교 간담회는 단기선교부장인 김춘권 장로의 간단한 각 팀별 소개가 있는 후, 선교위원장인 노광현 장로의 사죄로 실질적인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노광현 장로의 '충현교회 초창기 선교정책'과 '현 선교정책 및 대응방안', '앞으로의 단기선교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간담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가졌다.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한 설문지는 앞으로 우리 충현교회의 선교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주어 앞으로의 단기선교 사역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 여겨진다.



△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노광현 선교위원장.

이땅에서 온 선교 메시지

이 땅에 복음의 자유가 오기를 ...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이곳 TV 뉴스에 연일 한국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와 많으실지요? 이곳도 이상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태양이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루 빨리 복음의 자유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주) 되심을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법적으로 개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중동 모슬렘의 땅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철옹성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머지 않아 무너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개종은 못하더라도 마음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중동 땅에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부모와 이웃에게 발각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루빨리 자유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편지들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아가'는 저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만난 현지인 친구이며, 처음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손짓, 몸짓으로 대화를 했던 친구입니다. 기독교인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예로안이 자기 이름과 의미가 똑같다며 요한을 무척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가도 혼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밑에서 석류꽃을 모르고 읽고 있으며,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20분씩 보내 주는 방송실화를 들을 때도 합니다. 아가 믿음이 주님 안에서 끈고 끈게 자라나며, 저희와 신뢰 있는 교제가 계속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이집트 청년 '패디'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치과의사인 패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보내시는 뜻이든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에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여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곳 사회의 가치기온이므로 거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회교도들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곳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 말씀이 삶에서 생동감있게 살아나도록,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 지도자들이 성장함하여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회교도 일기(98년 7월)

나는 이곳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왔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애급 백성은 특이한 백성이다. 구약성경에서 보던 거짓말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며 강박한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우상을 잘 섬기며 강박하기는 여전히 것 같다.

오늘 친구 '라드무'를 만났다. 요즘은 계속 우리집에 와서 아랍어를 가르쳐 주는 친구다. 라드무와 나는 가끔 의견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다. 요즘은 그가 모슬렘들은 4번까지 결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사단의 속임과 무지에서 오는 그의 말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라드무는 '너의 말이 맞긴 하지만 나와는 대화가 안통한다'고 변명을 하기에 나는 웃음으로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계속해서 거짓말과 자신을 속이는 위선, 그리고 솔직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었을 때, 그는 성경적인 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진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진리는 언제나 어디 사나 승리한다.

은혜의 때

저희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후원교회의 어려움으로 후원이 끊긴 지 오래이고, IMF시대까지 겹쳤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듯이, 여러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 주심에 감격합니다. 어려운 중에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도우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값으로, 이 때가 은혜의 때가 되기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간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 말씀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와서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친구들에게 저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2. 영육으로 강건하여 세일을 아가게 하시고, 언어(아랍어)에 열심과 기억력을 주시도록.

1998. 8. 7.

허요 씨, 김신 실드림



특별한 모임을 소개합니다

홍수 정(70동기)

마음으로는 청년1부 GBS에 참석하고 싶지만 개인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분들, 무슨 방법이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1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별도의 GBS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얀 한가한 토요일 오후 3시 30분이나 주일 아침 9시에 허용구 전도사님과 함께 GBS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으로 주일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이 모임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성리, 김필수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허용구 전도사님의 기도과 사랑이 담긴 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원, 그리고 오게 된 동기는 모두 다양합니다. 찬양대 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영신인, 5부 찬양대원인 신아, 희승, 천우, 희선, 은경, 설화, 은혜, 수희, 주일에 격주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소영이, 교회 직원인 순주, 수현, 선영, 은영이,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GBS를 하지만 토요일이면 너무 좋아서 오는 정은 언니, 미숙, 또 재가 있습니다. 소영이와 친한 자는 재가 나와서 소영이가 나를 것 같아서 한 두 주 나와주다가(그 성경공부 시간이 너무 좋아서 고정 멤버가 되었지요, 허용구 전도사님의 끈질긴 전화로 인해 드디어 이 모임에 얼굴을 보이게 된 용원희, 세진, 세원, 최근에 간혹 우리의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영일와 푸근하게 모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은경 간사님도 배부를 수가 없죠.

토요 GBS와 주일 오전 GBS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것과 '말씀이 역사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GBS에 참석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저에게 주는 응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 공부한 성경 내용이 한 주간 내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서 간혹 길가다 눈물이 나오며 버스 안에서 잠이 들기도 하는 영신인, 5부 찬양대원인 신아, 희승, 천우, 희선, 은경, 설화, 은혜, 수희, 주일에 격주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소영이, 교회 직원인 순주, 수현, 선영, 은영이,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GBS를 하지만 토요일이면 너무 좋아서 오는 정은 언니, 미숙, 또 재가 있습니다. 소영이와 친한 자는 재가 나와서 소영이가 나를 것 같아서 한 두 주 나와주다가(그 성경공부 시간이 너무 좋아서 고정 멤버가 되었지요, 허용구 전도사님의 끈질긴 전화로 인해 드디어 이 모임에 얼굴을 보이게 된 용원희, 세진, 세원, 최근에 간혹 우리의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영일와 푸근하게 모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은경 간사님도 배부를 수가 없죠.

5부 찬양대 말씀을 하고 계산 본, 교회의 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에 청년1부 GBS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 마음은 있지만 막상 이해해서 청년1부에 발을 못디고 있는 분, 성경공부와 따스한 교제가 갈급하신 분들은 모두 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토요 GBS: 오후 3시 30분 교육관 5층

주일 GBS: 오전 9시 복지관 지하 3층

연락: 허용구 전도사님(015-7714-5278)

영적인 이어폰!

김길 남(70동기)

주위가 시끄러워!

버릇처럼 이어폰을 끼어다 꼴고 찬양을 듣는다.

목발은 소리라도 이어폰도 들으면

그날 들은 것보다 훨씬 실감에 난다. 뭐라 할까!

내 몸 도둑이 그 찬양을 듣는 듯 하더라도 할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꼭 빠질 수 있어서 좋다.

참지 그것에 내 머리 숙을 통하여

물러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성경을 그날 소실적 읽듯이 읽을 때도 있고

학교 공부 하듯이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 말씀에 꼭 빠지는 것.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빠지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내 생각과 생활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느낀 때가 있다.

찬양을 들으며 그 안에 들어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때마다

영적인 이어폰을 끼어다 듣는 생각을 한다.

실례 생각이며

IMF를 이기는 신중 직업

금 호 순(권사, 4교구 에스도전도회장)



뜻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뒤돌아서니 빨리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후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감정돛도 한 번 준비해 속칭 '총알 버스'에 몸을 싣었다. 쉬지 않고 달려도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부산까지의 거리를 그 버스는 4시간만에 주파했다. 그것도 휴게소에서 한 번 쉬기도 했으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머리가 바닥에 닿기만 하면 속면을 취하는 나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총알 버스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다리를 곧추 세우고 황급히 병실로 들어갔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 옆에는 다른 할머니도 한 분 누워 있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잠깐 졸고 있는데, 혼자 있던 연의 환자가 '일으켜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치근대면서 나의 달콤한 꿈을 해방놓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썼지 똥했는지 밤냄새가 나의 코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래저래 짜증이 난 나는 '할머니는 보호자가 없네요?'라고 통명스레 말을 내뱉고 피곤한 눈을 다시 붙여라. '이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천인가?' 하는 생각이 할머니를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다. 당도 해방중으로 인한 관철점으로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는 일은 지쳐있던 나에게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짜증스런 일이었다.

다. 낯시간이 되어서야 아들이라는 보호자가 왔다. '이제 나는 할머니 뒤처다거리를 안해도 되겠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즈음 얼굴에 함박꽃 같은 웃음을 띠어 아들이라는 병실문을 열었다. 아줌마의 손에는 때마침 파란 수건과 머리 깎는 기계가 들려 있었다. 코 끝에 안경을 매달고 있는 아줌마는 비틀어 짜던 금세라도 맘이 한 바가지 좁은 나을 듯 보이는 축 치킨 카운을 입은 것이 펴키나도 처량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식사 하셨어요?' 하며 할머니의 뉘네나 얼굴을 만져 주고 손

과 발을 열심히 주무르는 것이었다. 보호자인 아들에게 '목욕시켜 드리게 비누하고 수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말하더니 정성스레 목욕도 시켜 주고 서투른 가위질로 머리로 깎아 주었다. 까운이며 침대 시트까지 깨끗이 갈아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까? 하루에 몇 건만 해도 수입이 꽤 되는 신중 유망 직업이겠는데?' 기본로 에다 봉사비까지 받으면 꽤 짭짤하겠구나.' 하며 머리 속에는 돈 액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웃이 땅으로 흥건한 걸 보면 벌써 몇 건은 한 것 같은데, 이런 IMF 시대에 여자가 할 수 있는 밀천 앞드는 캔람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일당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던 나는 계속 보호자인 아들의 지갑과 패밀이 아줌마의 손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패밀이 아줌마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저는 요일 온천제일교회 전도회에서 나온 자원 봉사자입니다. 일요일에 병원 앞에 차를 대기하겠으니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예수님이 아저씨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한번 들리보세요.' 하며 예수님 자랑과 교회 자랑을 늘어놓는다. 나는 그래서야 이분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았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할 곳이 없다. 요즘 같은 때에 누구한테 전도를 하나? 바쁜 세상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겠느냐?'며 투덜대기도 했던 내 모습을 그러보며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빛진 자가 아닌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맑게 웃고 있는 그 아줌마를 지켜보며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 속으로 참으로 지나갔다. "누를 흠뻑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웃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사 126:5, 6)

학교신생애를 드리는 전도 편지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홍혜민(초등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 위해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와 지옥에 가야 할 우리 대신 세상에서 죄를 눈곱만큼도 안지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며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어서 죄를 안지어도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도 죄인일 수밖에요. 둘째, 첫째 이유가 억울하시다면 이 둘째 이유를 들어 보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거짓말 한 마디만 해도 우리는 죄인이 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것은 뒷편이나 이 장에 적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1998년 8월 17일에
홍혜민 올림



홍·현·계·시·판

이동명

(집사, 장년부부장)

공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면 질서일 것이다. 이를 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규율과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어려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앞으로 나 같은 수천 종'을 수없이 많이 배우고 따라 했다. 그 이전 유치원 시절에도 배워왔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좌우로 줄이 잘 맞으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군의 시기와 전력의 축적은 제식 훈련의 수준 정도를 보아 기준한다 한다.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다스의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질서는 능률적이다. 나는 요사이 1부에서 성도님들께서 저리에 앉으신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 총현교회의 질서와 다스리고 수준이 생각해 못미처 보이기 때문이다. 시골의 논과 밭의 농작물이 불규칙하게 떠밀리듯 솟아 오르며 농사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1부에서 떠밀리듯 앉은 성도들로 인해 헌금위원들이 수천할 때는 비능률적이며 어려움도 못하다. 언젠가는 밭을 차를 밟아 질서를 잡아보려 한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예배시에 무슨 이유로 뒤편 구석자리를 선택하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나는 성도님들이 선포하시는 목사님 대하시기 편한 자리에 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차례로 앉아 주셨으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름대로 피쳐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나 예배의 분위기와 성도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한바탕 생각해 보아 적석을 선택하면 어떠할까.

지체도 소식

영아부

학부모초청강좌회

학부모초청강좌회로 영아부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영아부 집회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는 가정, 주중에 선생님 이 전화 심방 하시는 감사하는 가정, 아기가 이기적인 성격에서 온순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는 가정, 선생님과 성경공부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가정, 아기를 위한 기도를 늘 해 주심에 감사하는 가정, 영아부 집회에 아바의 참여가 적다며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는 가정 등 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교사들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많음을 느꼈고 충원교회 영아부가 사랑이 넘치고 있음에 감사했다. (송혜경 통신원)

유치부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8월 25일에 성경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제에 귀 기울이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속에 참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말씀이 심가문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주일마다 있는 특별찬양



"자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린이 파석과 찬양대 쪽에서 일어나는 머리가 한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리 표지한 찬송가를 펴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아이크 앞에 섭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잘 안보여 얼굴에 바짝 붉습니다. 파아노 반주에 맞추어 목청껏 소리 높여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유년부 예배 때 헌금 송을 부르는 반(사건은 1학년 11반 유요종 선생님 반)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헌금위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며, 일주일 동안 용돈을 아껴 준비한 헌금을 교사리손들이 두 손 모아 드립니다. 이때 각 반은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 헌금송을 부릅니다. 자기 반 차례가 되면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과 연습합니다. 그리고 헌금송을 부르는 주일은 예배가 차려 입고 머리로 손질하고 모두 신사 숙녀가 됩니다. 2학년은 의젓하게 찬양하고, 1학년은 귀엽게 찬송합니다. 모습은 사람마다 미소로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강현주 통신원)

소년부

임은 앙을 찾아서

7월부터 장기결석 임은 앙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교회에 다시 적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장기결석생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주부와 교제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생 4종류로 특별히 분류하고 있는데 먼 거리로 옮 수 없는 아이들과 주사나 전화가 불명인 아이들, 또 출석이 불규칙한 아이들, 단순히 뚜렷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아이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하여 8월 23일까지 87명 중 15명이 나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 모두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합니다. 또한 9월 한 달을 어린이 집담의 달로 정하여 초청전도 잔치를 함께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본당 종당에서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한연승 통신원)

중등2부

정하의 뿔까지 할게요

어느 새 가을과 저녁에는 제법 신선함을 느끼는 9월의 문턱에서 중등2부의 가족들은 할로 가에 이따다 못해 명해져 버렸습니다. 깨끗이 나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안고 한 중의 재로 변하여 우리 절을 떠난 정하! 그러나 정하는 우리 절을 그저 떠나게 아니었으며, 정하가 이루고 싶어도 주 수 없는 선교사의 꿈이랄는지 이를, 사랑, 성령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은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신 뜻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남성애 통신원)

조정하 군은 자신이 저축했던 적지 않은 금액을 동료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축하곡을 졸업할 때까지 도와 주라고 ...

고등부

수해지역 봉사



8월 18일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수해 봉사를 나갔습니다. 진관내동은 북한산 일구에 있는 마을로 북한산 줄기에서 흘러내린 물로 일부 가옥이 침수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 봉사는 부강 집사님과 진도사님의 인솔 아래 교사 8명, 학생 4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개 조로써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및 양열 물품 작업,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작업, 하수도 보수 작업 및 물품작업, 개인 주자장 보수 작업, 축대 쌓기 작업으로 구분하여 봉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갈랄까 냉담하였는데 작업 진행 상황과 작업 종료 후의 상황을 보고 상당히 놀라며 칭찬하였습니다. 고등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최윤환 통신원)

장년3부

말씀 통해 날마다 강권해지는 삶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자 했기에 외치며 장년3부 60대 어른들은 주일마다 모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묘한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 한다. 얼굴들엔 영혼의 빛이 빛나는 장년3부 어른들, 우리 교회의 60대 어른들이여, 모두 모여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힘입으시기를 외칩니다. 1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집회, 교육관 305호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 말씀에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뤄지는 기쁜 시간을 함께 누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개며 주일마다 부흥회를 열여 주시는 지도 목사님의 말씀을 충현의 60대들이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듣기에는 아까운 금과 같이 귀한 말씀을 많이 오셔서 듣고 몸은 비록 후회해갈라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염미숙 통신원)

1교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파

강원도 원주의 행구교회 농어촌 전도후의 평가회를 가졌다. 출발 전 준비과정 중 영동야마르를 2인 1조로 축회전도 실습을 하며 마을을 다녔고, 행구교회 성도와 2인 1조씩 마을 전역을 전도하던 중 한 두 땅을 내리던 비가 세차게 쏟아져도 중단할 수 없는, 그날수복 전진해야 하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이 씨가 새 삶을 이어나는 심령과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기원했다. (임동태 통신원)

2교구

이 땅 고쳐 주소서

IMF 및 수해 등이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판단하고 8월 25일 오후 6시부터 교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역대하 7월 11일부터 18일 말씀에 토대하여 만찬회에서 식사 및 다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사랑부설로 옮겨 찬양 및 크로마마르,

여성중창단의 특출 순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으며 함께 온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찬양부를 운영, 기도에서 장정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2교구는 3년 전부터 성경읽기에 주력하고 있는 교구로서 교구장 장로님께서 성경읽기에 대한 방법 및 미국 다. 엘. 무디 목사님의 100쪽 이상 동 예를 들었고 말씀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밧 밧이 가는 줄 모르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한 가지 주어진 때마다 진정한 회개와 기쁨을 체험하는 교구 성구들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 되어 가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속박과 사랑이 넘치는 밤이었다. (이성혜 통신원)

15교구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한 베드로는 치열한 패배에 통탄의 시간을 보냈고 차치되지 않은 내적 상처를 안은 채 일상의 어부로 돌아가 있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 오셔서 가장 작은 부분을 스스로 고백해주시고 베드로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주님과 관계의 문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다. 교구모임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믿음장인 히브리스 11장과 창세기 5장 22절 등의 말씀을 찾고 읽으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알 수 있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나눌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내적 동기나 이웃에게 나타나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숙정 통신원)

충원복지관

수재의연급 모금



복지관에서는 8월 24일-28일에 수재의연급을 모금했다. 직업훈련생들과 교육 재화와 아동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가짐, 태도,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많은 직원과 직업 훈련생, 아동들 모두가 작은 정성을 모아 조선일보에 전달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주일 오후 기도회

9월 6일부터 갈릴릴로 옮겨 실시

전교인 참여, 회개의 눈물, 구원의 외침, 간구

- 일시 : 매주일 오후 3시~4시 30분
- 인도 : 김재철 목사
- 문의 : 설업인전도회(교육관 112호, 구내전화 : 448)

· 장소 : 갈릴릴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렘 29:12, 13)

교 회 소 식

● 알 림

1. 성찬식 / 오늘 I, II, III, IV, V 부에 배 시 있습니다.
2. 제직회 안내 / 13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 '98 성경연구원 개강 / 주안성경공부(크로스웨이, 창세기, 여호수아, 사사기)로써, 로마서, 대살로니가전서는 8월(화)부터, 직분자 양육반(전사 구역장 권철만, 남성구역장만, 안수집사반)은 9월(수)부터, 그리고 교사양성부서와 찬양대원양성부는 오늘부터 강사가 진행됩니다.
4. 동서칠도회 여전도회 회장 월례회 / 7월(월) 11:00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각지회 여전도회 회장은 모두 참석(성남제일교회 ☎ 0342-734-6003).

● 모 임

1. 정기 당회 / 9월(수) II 부에 배 후, 당회실
2. 장로 회요새박기도회 / 8월(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례회 / 8월(월) 새벽기도 후, 7월(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5. 건축위원회 / 오늘 16:10, 사무국
6. 남년전도부 각교구 연합찬양,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7. 교동정교회 월례회 / 오늘 16:00(기도회 모임 후), 갈릴리움
8.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0월(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9. 김장전도회 월례회 / 13일(다음 주일) 15:00, 칼빈홀
10. 13교구 협의회 / 11월(금) 17:30, 만나홀
11.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12.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9월(수) I 부에 배 후, 사랑부실

● 남년전도회

1. 베드로 2 / 12월(토) 19:30, 박상대 집사택(543-4712)
2. 요 한 17 / 12월(토) 16:00, 김동수 집사택(0335-36-5865)

3. 한 나15 / 10월(목) 10:00, 관아산
4. 에스더 4 / 8월(화) 11:00, 칼빈홀
5. 마리아 1 / 15월(화) 10:30, 사랑부실

● 결 혼

1. 김성환군(김봉만 장로, 도수자 집사의 아들)과 정혜영양(양호원 성도, 김은나 집사의 딸, 제8교구) / 10월(수) 12:30 갈릴리움
2. 안철호군(안영준 씨, 오양숙 집사의 아들, 제2교구)과 김혜연양(김재순 집사, 권은미 권사의 딸) / 11월(금) 13:00 갈릴리움
3. 이명수군(이종현 씨, 장광자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황경아양(황창조 집사, 허인순 집사의 딸, 제4교구) / 12월(토) 13:00 갈릴리움
4. 이강호군(이기우 씨, 함경숙 집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송영진양(송희호 집사, 이문구 권사의 딸, 제15교구) / 12월(토) 14:00 복지관

● 별 세

1. 이근호 집사(오덕희 권사 남편, 제16교구 산본구역) / 8월 19일 별세, 8월 21일 장례
2. 정태웅 성도(박익영 성도 남편, 오준본 집사 사부, 제8교구 자양2구역) / 8월 30일 별세, 9월 1일 장례
3. 권오득 장로(김복성 권사 남편, 권병목 안수집사 부흥, 화순화 집사 사부, 제4교구 한양구역) / 19일 별세, 3일 장례

● 전회번호 변경

1. 김경철 장로, 유금순 권사 / ☎ 0331-235-1823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25	조태숙	2	무디아	조태일(2)	1439	김진호	15	에바다		1453	장용진	19	대학부	
1426	정종미	2	중동부	조태일(2)	1440	송정환	15	에바다		1454	김정훈	19	대학부	
1427	정현용	2	청년2부	조태일(2)	1441	김태수	15	에바다		1455	장유진	19	대학부	
1428	차상복	4	청년2부	양시원(5)	1442	이덕훈	17	바울		1456	이진복	19	대학부	
1429	윤정환	6	청년2부		1443	이미라	19	청년1부	윤돈현(14)	1457	김정환	19	대학부	
1430	김연호	6	청년2부		1444	최병훈	19	청년1부	박윤식(8)	1458	박준하	19	대학부	
1431	손정자	9	청년2부	박윤식(8)	1445	신재범	19	청년1부		1459	송 군	19	대학부	
1432	이은희	9	청년2부		1446	김세우	19	청년1부	정정근(8)	1460	이창태	19	대학부	
1433	권덕연	12	청년2부	박종소(12)	1447	구현진	19	대학부		1461	안세호	17	바울	김신국(1)
1434	이은미	13	청년2부		1448	박수희	19	대학부		1462	이종남	17	에스더	김신국(1)
1435	이윤서	14	베드로	박윤식(8)	1449	홍경아	19	대학부		1463	안상훈	17	고동부	김신국(1)
1436	이영관	14	청년1부	박윤식(8)	1450	손상근	19	대학부	손상진(19)	1464	권지영	19	청년1부	
1437	소연정	14	청년2부	박윤식(8)	1451	이수용	19	대학부		1465	김재민	19	대학부	
1438	김용구	15	청년2부	윤준강(15)	1452	송민정	19	대학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

남편들에게 드리는 격려

한 수 경(집사, 15교구)

세례 요한이 해묵은 권세욕과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 적당히 입다물고 자신의 사역만 열심히 했다면 죽었을까? 그가 팔아에서만 지내면서 가족에게 험한 음식을 먹고 살며 하나 남 하나에 대해서만 외쳤다면 세상의 감옥에 갇혔을까? 그의 금욕적이며 청빈한 생활이 또 그의 의로운 성격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더욱 못본 척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짧은 인생의 험한 말로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도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직분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도 통화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무명의 남편들에게 한결

는 찬사와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뜨거운 기도와 함께 보내 드린다. 비록 약삭 빠른 줄서기를 못하고 술잔에서요 이리 저리 치이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와 부는 소유하지 못했어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열매 맺는 삶이기 에 그의 아내들은 행복하다. "다이아몬드(세상적인 것들)와 한 톨의 밀알(영원한 것)을 놓고 선택하라면 생명이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생명을 낳아 수확할뿐 아니라 한 톨의 밀알을 기꺼이 선택하는 당신의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달라. 아내들은 주님을 향한 당신들의 선택에 순종하고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기 하고 있다.

동서울교회 제54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원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청원(당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당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 ③ 전도사 고시 청원
 -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 신학 지원 자)
 - ⑤ 신학 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1998년 9월 18일(금)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부(☎ 563-2339)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원로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창원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안에 거하며 그 복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처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탄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중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믿음과 감동이 깊게 하고 용이아 온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⑦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원로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식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철수 김재철 이승수 장갑진 장민인 조로한 조희찬 김동환 차재관 김병대 김진식 권상현 서병진 이승화 정해성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김진호 안석철 김영대
- 집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우란
- 여전도회 최준복 정현일 현정남 정복인 장정자 최은희 김경희 최희배 오기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은숙 오경숙 오인숙 김복순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동전도사 박희진
- 박희진 연합회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식 김장중 조재민 최진우 허구근 이우란
- 신신전도사 정은희 박태영
- 원신전도사 유봉식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

9월 13일 예배 전 전영국 및 은주자

- ◆ 2, 4부예배 루디아(성경중창단 (잔양목))
 -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 주 하나님
 - 언제 주님 오실는지 · 내 모든 시립
 - 이 세상 영화고
- ◆ 3부예배 소프라노 김송자(이연창당대 솔로리스트) (잔양목)
 - 주없이 살 수 없네
 - 주님이 열광 하라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한 465장)
 - 내 길 길 멀고 맑은 길은네(한 429장)
- ◆ 5부예배 소프라노 김송자(이연창당대 솔로리스트) (잔양목)
 - 세상 모두 사랑 없어(한 373장)
 - 내 길 길 멀고 맑은 길은네(한 429장)
 - 주없이 살 수 없네 · 주님의 열광 보라